

도서관, 이토록 즐거운 곳이었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맞아 광주 공공도서관 곳곳에서 전시·체험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해 무등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 주간 행사 장면. <무등도서관 제공>



광주시·구립도서관 ‘도서관의 날’ 맞아 프로그램 다채
사직, 12일 문경민 작가…무등, 18일 백수린 작가 북토크
한강 작가 글 필사하면 기념품…친환경펜슬 홀더 만들기 등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맞아 광주 지역 도서관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주간을 기념해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과 각 구립도서관 등은 작가 초청 강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도서관주간의 주제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도서관이 삶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유명 작가들이 지역 도서관을 찾는다. 오는 12일 광주시립도서관인 사직도서관에서 문경민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나는 북어’와 ‘홀홀’ 등 따스한 청소년 작품을 집필해온 문 작가는 ‘세상이 알아야 하는 고통이 있다’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눈부신 안부’의 백수린 작가는 18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같은 날 오후 5시 상록도서관에서 잇따라 북토크를 진행한다. 작가 사인회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꽃길이 따로 있다, 내 삶이 꽃인 것’을 오픈선 작가(12일)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엄마 심리 수업’의 윤우상 작가(15일)가, 문화의숲도서관에

서는 ‘트렌드코리아 2025’를 공동집필한 이혜원 작가(18일)가 강연을 펼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한강을 읽다, 마음을 쓰다’ 이벤트를 운영한다.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글을 필사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작별하지 않는다’와 필사세트(노트, 북클립) 등을 증정한다. 도서관주간(12~18일)에 독서퀴즈 이벤트도 펼쳐져, 정답자 4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중앙도서관 분관 최상준도서관에서는 친환경재료를 이용한 펜슬 홀더 만들기 체험 ‘봄엔 쓰자! 펜슬 홀더 만들기’가 진행되며, 참여자 50명에게 씨앗 화분 키트가 증정되는 ‘도서관, 봄을 싹 틔우다’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각 구립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족단위 행사를 준비했다.

동구 책정원 도서관은 12일 오후 3시 아이들을 위한 ‘버블&풍선쇼’를 마련했다.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북작북작 그림책 놀이터’(13일), 인지형 동화작가와 북토크(18일) 등도 이어진다.

서구 서빛마루도서관은 ‘엄마·아빠와 편지치들 키링 만들기’(12·18일), 남구 문화정보도서

관은 ‘바다풍경 클레이비누 만들기’(12일), 북구 일곡도서관은 ‘레진 웨이커 책갈피 만들기’(12일), 광산구 장덕도서관은 ‘무형유산 후계자와 함께하는 나전공예 체험’(18일) 등이 펼쳐진다.

첨단도서관은 영화와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문학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13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칠드런 액트’, ‘개빈에 대하여’, ‘디아워스’ 등을 감상한 뒤 각 주제에 맞춰 해석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열매 대출 정지 해제 이벤트’도 각 도서관별로 시행된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일상 속에서 독서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길 바란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시작된 ‘책 읽는 광주’의 열기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오늘 도서관 가 봄’ 캠페인을 운영한다. 도서관 방문 후 각종 미션을 수행하면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서도 전자책 리더기 등 경품이 증정된다.

방문이벤트는 광양중앙도서관, 무등도서관, 서빛마루도서관,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여수시이순신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집, 중흥도서관, 해남군립도서관, 전남대 중앙도서관, 온가죽그림책작은도서관 등 10곳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수양 통해 마음에도 꽃 피우는 삶

광양 출신 김한호 수필가 에세이집 ‘마음의 꽃’ 펴내

“마음을 수양하며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자”는 뜻에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광양 출신 김한호(사진) 수필가가 에세이집 ‘마음의 꽃’(북나비)을 펴냈다.

김 수필가는 그동안 문예지 등 지면 매체에 발표한 작품 가운데 60편을 가려 뽑아 수록했다.

수필집 발간 배경에 대해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며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다운 삶을 상실하면서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질만능으로 대변되는 각박한 사회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꽃’을 피워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비우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실천하기 어렵다.

저자가 표제적인 ‘마음의 꽃’을 쓰게 된 계기는 백양사 천전암에서 보았던 탱자나무가 모티브가 됐다. 당초 절에는 고불매처럼 고운 여승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비구니가 되려는 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저자는 500년 전 썩어 튼 탱자나무를 보다 어린 시절 탱자나무 가시에 찔린 기억을 떠올렸다. 호랑나비를 잡다가 가시에 찔린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탱자나무 하얀 꽃잎이 가시에 찔려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며 “아



마 천전암의 수도승들도 가시에 찔린 아픈 마음을 탱자나무 가시를 보면서 스스로를 수양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책에는 ‘어떻게 사는가’, ‘마음의 빛깔’, ‘어두운 세월 저편의 소리’, ‘달빛나루에서 운동주를 생각하며’, ‘금남로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하늘빛이 서러워’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고교 교장으로 퇴임한 김 수필가는 ‘한국수필’, ‘문학춘추’에 각각 수필,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광주 문협 부회장과 전남문협 수필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슬픈 시인의 노래’, ‘춤추는 꽃’, ‘살아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수필의 이론과 창작’ 등을 발간했으며 세종문학상, 수필문학상, 국제PEN광주문학상, 한민족문화예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창 농악’ 신명나게 돌아보세

고창농악보존회, 7월까지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상설 굿판’



고창농악보존회가 매달 ‘고창농악 상설굿판’을 개최한다. 지난해 펼쳐진 공연 모습. <고창농악보존회 제공>

고창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면서 중간지역인 고창의 특성이 어우러져 ‘간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을 대표하는 민속예술, 고창농악이 올해도 신명나는 장단과 함께 지역민들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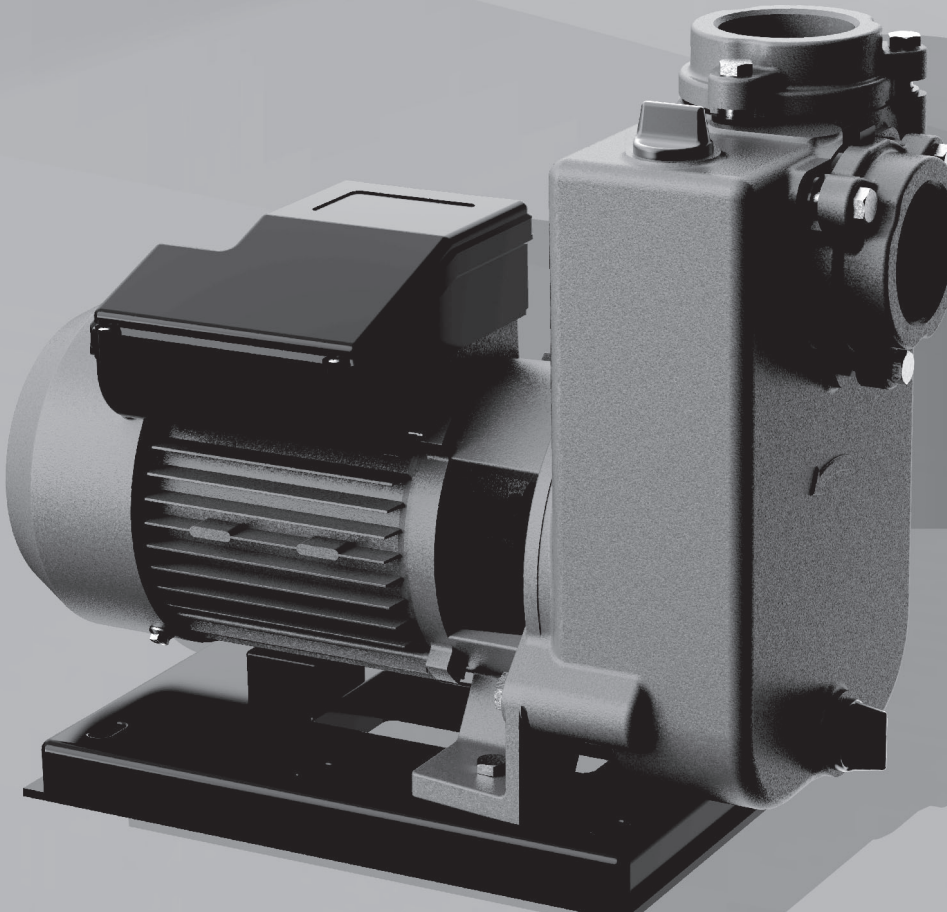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고창농악보존회는 4월부터 7월까지(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고창군 성송면의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고창농악 상설굿판’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 생생국가유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관람객들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고창 7대 보물 중 하나인 고창농악의 진수를 즐길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고칼소고춤’과 해학적인 ‘잡색놀이’가 펼쳐져 이목을 끈다.

먼저 오는 25일에는 고창농악 상설굿판 개막식이 열린다. 창농악뿐 아니라 전북 임실의 국가무형문화재인 ‘임실필봉농악’을 전승하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흥겨운 한판을 벌인다. 이어 5월에는 광주광산농악보존회, 6월에는 구례호남여성농악보존회, 7월에는 고흥마동매구보존회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전라도의 다채로운 농악을 선보인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카페, 주막,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함께 마련된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과 오베이플 토요일터, 내장국악기 불교사, 지음공방 등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